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46호

Jeff Pippenger

2026-02-12

사십육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이사랴 마리티마에 이르기까지는 제삼시에서 제구시에 이르는 기간을 표상하며, 그 가운데 제육시에서 둘로 나뉜다.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로 이어지는 구간의 구분점은 변화산이었다. 변화산은 오순절의 일요일 법령보다 다섯 날 앞서는 세 단계의 이정표에 다른 두 선을 맞춘다.

산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처음 말씀하신 때는 그리스도의 세례 때였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때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었다.

지금 내 영혼이 번민하나니, 내가 무엇이랴 말하라?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이르렀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거니와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곁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무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우리가 울었다 하고, 다른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더라. 요한복음 12:27-29.

하나님께서서는 십사만 사천을 인치시고 그들 위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그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 성의 이름,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내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12, 13.

변화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있었는데, 야이로의 딸의 부활 때와 또 겻세마네에서도 오직 이들만이 있었다. 겻세마네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십자가 바로 앞에 있었다. '겻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으로, 처녀들의 기름의 시험을 가리킨다. 겻세마네는 영혼을 '죽음과 대면하게 하는' '위기'이며,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시험을 통과한다. 이는 두 번째 성전 시험에서 그들이 생명과 '대면'하였기 때문이니, 예수께서 삼십 일 동안 '대면하여' 가르치신 대로이다.

아버지께서 처음 말씀하신 때는 그리스도의 세례 때였고, 그분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신 첫 번째 경우는 야이로의 열두 살 된 딸이 부활하였을 때였다. 열두 살 처녀의 부활은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세례와 상응한다. 야이로의 딸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세례와 가이사랴 빌립보와 상응한다. 겻세마네와, 십자가 직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께 임한 번민은 가이사랴 마리티마와 상응한다.

줄에 줄을 더해 보면, 시몬 바요나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인침을 받는 십사만 사천을 베드로가 대표한다. 가이사랴 빌립보인 파니움에서 인침을 받은 후, 베드로는 가이사랴 마리티마에서의 고넬료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계속 나아가며 산에서의 제육시에 이르고, 거기서 기치로 높이 들림을 받는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과 선포할 한밤중 외침의 기별을 가지고 엑서터 야영집회를 떠난다. 나팔절로 대표되는 이슬람의 기별이 베드로를 바닷가 가이사랴로 이끈다. 이슬람의 기별은 베드로를 온 세상 앞에 높이 들어 올린다. 이는 베드로가 나팔절에 앞서 이슬람의 예언적 도래를 미리 예고하였기 때문이다.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 4:5, 6.

선에 선을 더하는 원칙에 따르면 엘리야의 기별은 아버지들을 그 자녀들과 대응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별이다. 엘리야는 아버지 밀러였으며, 그는 자신의 자녀들을 예증하는 자였다. 십사만 사천은 윌리엄 밀러의 자녀들이며, 밀러의 마음을 그의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밀러주의 운동의 역사를 엘리야의 역사와 대응시키는 것이고, 또한 세례 요한의 역사를 십사만 사천과 연관된 사자의 역사와 대응시키는 것이다. 이 네 역사선의 대응의 한 요소는, 엘리야와 요한, 그리고 밀러의 각 시험의 역사에서 유일한 현재 진리의 기별은 사자를 통하여 온 기별이었다는 점이다.

길르앗 주민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그 앞에서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이는 이 여려 해 동안 이슬도 비도 있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7:1.

엘렌 G. 화잇은 예수께서 엘리야로 동일시하신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으로 유익을 얻지 못하였으며, 또한 첫째 천사의 기별로 표상되는 밀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없었다고 분명히 한다. 엘리야가 비가 오직 그의 명령에 따라서만 올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 그와 함께 엘리야의 기별과 바알의 기별 가운데서 선택하라는 명령을 포함한 궁극적 시금석이 수반되었다. '얼마나 오래'라는 예언적 상징은 갈멜산의 엘리야를 일요일 법령과 대응시킨다.

이에 아합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생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거니와 바알의 선지자는 사백오십 명이니라. 그런즉 그들이 우리에게 수송아지 둘을 주게 하고,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한 수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되 불은 불이지 말 것이며, 나도 다른 수송아지를 준비하여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불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리라.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니라 하자 하니,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열왕기상 18:20-24.

갈멜의 시험은 두 기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었다. 참과 거짓 예언 사이, 곧 사자인 엘리야와 이세벨의 상에 앉아 있던 선지자들 사이의 시험이었다. 그것은 사자와 기별에 관한 것이었다. 1844년에 주께서 밀러가 참 선지자임을, 그리고 밀러의 기별이 이슬과 비임을 드러내는 시험을 일으키심으로써 갈멜이 반복되었다. 참 선지자와 참 기별,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기별의 구별은 엑서터 야영 집회에서 엑서터 장막과 워터타운 그룹의 장막으로 대표되었다. 거짓에 대조되는 참을 대표하는 두 장막이었다. 갈멜에서 이루어진 그 구별과 1844년의 역사는, 베드로가 인쳐지고 기치로서 산 위에 들려 올려지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확인된다. 그는 자신의 기별이 늦은 비의 유일한 참된 기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들려 올려졌다. 그의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그는 들려 올려졌다.

나팔절은 오순절기의 세 번째이자 시금석이며, 그 시금석에 앞서 베드로는 한밤중의 외침 선포의 시작을 알리는 표징으로 이슬람이 풀려나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예언의 성취야말로 밀러주의자들과 개신교도들 사이의 구별을 이루게 한 것이었으며, 개신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지나쳐 가심을 당하고 있는 이전의 언약 백성을 대표한다. 참과 거짓의 구별이 드러나자,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친히 죽였다. 그 구별은 이슬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때, 곧 나팔절에 이루어진다.

밀러주의 역사에서의 '한밤중의 외침'은 정정된 후 성취된 예언이었다. 그것은 1844년 10월 22일에 성취되었으며, 반면 밀러가 '한밤중의 외침'을 본래 이해한 바는 1843년이였다. 사무엘 스노는 그 기별의 정정을 대변하였고, 그의 기별은 '참된 한밤중의 외침' 기별로 알려지게 되었다.

1844년은 밀러의 기별과 개신교의 기별 사이의 구별을 보여 주는 예증이었다. 시험의 과정에서 개신교도들은 밀러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 그런 다음 그들은 배도한 개신교, 로마의 딸들, 이세벨의 제사장들이 되었다. 그 구별은 예언의 기별을 수용하느냐 거절하느냐에 의해 드러났다. 요한과 밀러의 경우, 예언의 기별은 이전에 언약의 백성이었으나 제쳐 두심을 당하고 있던 자들의 거짓 기별을 폭로하였다. 엘리야의 기별은 그의 말에 의하지 않고서는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고 선포하였고, 삼 년 육 개월 후 그 주장에 대한 시험이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와 네 아비의 집이 여호와와 계명을 버리고 네가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 산으로 내게로 모으고, 바알의 선지자 사백오십 명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아세라의 선지자 사백 명도 모으라." 열왕기상 18:17-19.

거짓과 참의 구분, 곧 그것이 사자이든 메시지이든 간에, 그 구분은 메시지와 사자 모두에 대한 비난을 포함하는 시험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엘리야는 그의 메시지가 비를 멈추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로 지목되어 비난을 받았다. 만일 이스라엘에 비가 계속 내렸더라면 엘리야에 관한 어떤 쟁점도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쟁점은 엘리야의 예언과 삼 년 육 개월에 걸친 그 예언의 성취에 근거한 것이었다.

나팔절이자 또한 나귀가 풀리는 곳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시금석에 베드로가 서 있을 때, 한밤중 외침의 기별의 시작이 표시된다. 엘리야와 같이 베드로는 방금 자신의 예언이

확증되는 것을 목도하였고, 참과 거짓의 구별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드러났다. 그 예언의 확증은 시금석인 나팔절로 표상된다. 그 예언은 1840년과 1844년 모두에서 예표되었는데, 거기서는 예언의 해석이 수정되고 이후에 성취된다. 조시아 리치의 수정된 예언 해석은 1840년 8월 11일에 첫째 천사에게 권능을 부여하였고, 밀러가 제시한 1843년이라는 연도에 대한 예언은 스노우에 의해 수정되었다.

“1840년에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예언의 성취가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로부터 2년 전, 재림을 전파하던 지도적 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조시아 리치는 요한계시록 9장에 대한 해설을 출판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몰락을 예언하였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이 세력은 ... 1840년 8월 11일에 전복될 것이었으며, 그때가 되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오스만의 권세가 깨어질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바로 지정된 그대에 터키는 그 사절들을 통하여 유럽의 동맹 열강의 보호를 받아들였고, 그리하여 스스로를 기독교 국가들의 지배 아래 두었다. 그 사건은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였다. 이 일이 알려지자, 허다한 사람들이 밀러와 그의 동료들이 채택한 예언 해석 원칙의 정당성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재림 운동에는 놀라운 추진력이 부여되었다. 학식과 지위를 갖춘 사람들이 밀러와 연합하여 그의 견해를 전파하고 출판하는 일에 함께하였고, 1840년부터 1844년까지 그 사업은 급속히 확장되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34, 335.

리치의 예언은 이슬람에 관한 것이었고, 스노의 예언은 달힌 문에 관한 것이었다. 리치의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그 기별을 정립한 방법론이 수용되었고, 그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사자와 "연합"하였다. 예언의 성취 가운데 기별과 사자 모두가 인정되었다. 리치의 예언은 이슬람에 관한 것이었고, 스노의 예언은 달힌 문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대에 차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려는 뜻을 가지셨다. 그분의 손이 예언의 기간을 계산하는데 생긴 한 실수를 감추셨다. 주님을 기다리던 이들은 이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 시기를 반대하던 가장 학식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실망을 겪도록 뜻하셨다. 때가 지나가자, 구주를 기쁜 기대 속에 바라보던 자들은 슬퍼하며 낙담했으며, 예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그 기별을 받아들였던 자들은 기대하던 때에 그분이 오지 않은 것을 기뻐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마음을 감화시키지도 생애를 정결하게 하지도 못했다. 그 시간이 지나간 것은 그런 마음들을 드러내기에 매우 적합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돌아서서, 자신들의 구주의 나타나심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슬프고 실망한 이들을 조롱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시험하시고, 시련의 때에 움츠러들어 뒤로 물러갈 자들을 드러내기 위해 그들에게 철저한 시험을 주시는 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다.

예수님과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은 그들의 영혼이 사랑하는 그분을 뵈기를 간절한 기대 속에 오랫동안 사모해 온 이들을 동정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다. 시련의 때에 그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천사들이 그들 주위에 머물렀다. 하늘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소홀히 한 자들은 어둠 속에 버려졌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보내신 빛을 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타올랐다. 자기들의 주께서 왜 오지 않으셨는지 이해하지 못해 실망했지만 신실했던 이들은 어둠 속에 버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성경으로 인도되어 예언 기간들을

탐구하였다. 주께서 숫자들 위에 두셨던 손이 거두어지자, 그 잘못이 밝혀졌다. 그들은 예언 기간이 1844년까지 이어진다는 것과, 예언 기간이 1843년에 마친다고 보이기 위해 그들이 제시했던 바로 그 증거가 오히려 1844년에 종료함을 증명한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빛이 그들의 입장에 비치자, 그들은 지체의 때를 발견했다—'비록 [그 환상]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리스도의 임박한 오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기다리는 자들을 드러내도록 마련된 그 환상의 지체를 간과했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정해진 시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심한 실망을 딛고 일어서지 못하여, 1843년에 그들의 믿음을 특징지었던 그 정도의 열성과 활력을 지니지 못함을 보았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그들 위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던 자들은 그들이 '미혹'이라 부른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신의 선견지명 있는 판단과 지혜를 스스로 자축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하나님의 권면을 거절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으며, 하늘에서 보낸 메시지를 삶으로 실천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연합하여 일하고 있었다.

"이 기별을 믿는 이들은 교회들 안에서 억압을 받았다. 한동안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속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본심이 드러났다. 그들은 예언의 기간이 1844년까지 이어진다는, 기다리는 자들이 마땅히 증거해야 한다고 느꼈던 그 증언을 침묵시키려 했다. 신자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왜 1844년에 그들의 주께서 오실 것으로 기대했는지 그 이유를 제시했다. 반대자들은 제시된 강력한 근거를 반박할 논거를 내놓지 못했다. 그럼에도 교회들의 분노가 타올랐고, 그들은 증거를 들으려 하지 않았으며, 다른 이들이 듣지 못하도록 그 증언을 교회에서 차단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을 다른 이들에게 차마 감추지 못한 자들은 교회에서 쫓겨났으나,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하셨고 그들은 그분의 얼굴빛 가운데서 기뻐하였다. 그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Early Writings, 235-237.

베드로는 리치와 같이 이슬람과 한 왕국의 종말에 관하여 정정된 예언을 제시하고, 또한 스노와 같이 달힌 문에 대한 정정된 예언도 제시하는 십사만 사천을 대표한다. 리치의 이슬람에 관한 둘째 화 기별은 외적 예언이었고, 스노의 달힌 문에 대한 기별은 내적 예언이었다. 스노에게 있어 그 사역은 주께서 수치에서 그의 손을 거두셨을 때 시작되었고, 그때 이전에는 1843년을 증명한다고 여겨졌던 바로 그 동일한 증거가 실제로는 1844년 10월 22일을 증명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리치에게 있어서는, 성취될 때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내려와 땅과 바다 위에 서게 하였던 것은 하나의 계산이었다.

리치가 자신의 예측이 성취되기 열흘 전에 그것을 재계산하였다는 사실은, 이전의 예측을 정정하는 작업을 하나의 시험으로 규정한다. 1840년에 시작하여 1844년에 끝나는 것은, 재계산되어 참된 한밤중의 외침이 되는 예측을 가리키는 예언적 상징인가? 한밤중의 외침의 선포로 종결된 밀러주의 역사에서 그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는 실제로 십사만 사천의 참된 한밤중의 외침의 예언적 특성을 예표하는가?

정정된 예언의 선포의 두 시기 모두에서, 그 기별이 백성들을 번민케 하였기 때문에 밀러파 기별을 둘러싼 논쟁이 드러났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섰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 이전에 시작된 그 기별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는데, 이는 오직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만 비의 기별이 내릴 것임을 확증하는 성취였기 때문이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나팔절에 해당하며, 이는 그리스도께서 둘째 천사를 대표하는 두 제자를 보내어 이슬람의 나귀를 풀게 하신 것과 상응한다. 이슬람의 나귀가 풀리는 것은 엑서터 야영 집회에서 밤중의 외침 기별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으로서, 개회일에 도착하기보다 지체하였던 새뮤얼 스노우가 8월 13일 하루 늦게 말을 타고 도착함으로써 지체의 때의 종결과, 그 집회가 17일에 끝날 때 해일처럼 퍼져 나갈 그 기별의 시작을 표시하였다.

밀러주의 역사에 관한 논쟁과 아합 왕의 비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시비를 걸던 유대인들의 저항은 모두, 나귀의 매임이 풀리는 나팔절에 결말에 이르는 하나의 논쟁을 지목한다. 나귀의 매임이 풀리는 것은, 시초에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재림운동 위에 닫힌 문을, 그 기간의 말미에는 가이사라 마리티마에서 닫힌 문을 지목하는 예언의 확증이다. 그 나귀는 테네시 주 내슈빌을 포함한 미합중국을 치는 셋째 화인 이슬람의 상징이다. 2020년 7월 18일의 실패한 예언은, 주께서 그분의 손을 거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을 여심에 따라, 이제 점진적으로 교정되고 있다. 그 봉인 해제는 2023년 7월 광야에서 시작되었다.

다니엘서 제11장의 환상

나팔절은 일곱째 나팔을 가리키며, 그것은 셋째 화요, 곧 이슬람이다. 나팔은 전쟁에 대한 외적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거룩한 성회로의 내적 부르심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제2성전 시험의 30일이 마칠 때 시작되는 시금석으로서, 그것은 외적이면서 동시에 내적인 메시지이다. 첫 번째 기초적 시험은 다니엘 11장 14절에 제시된 적그리스도의 외적 환상과 함께 2024년 봄에 도래하였다.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 남방 왕을 대적할 것이요, 또 네 백성 중 강포한 자들이 스스로 높여 그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다니엘 11:14.

이전 절에서 파니움이 도입되었고, 파니움의 증언은 15절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이는 북방의 왕이 돌아올 것이며, 이전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며, 여러 해 후에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다니엘 11:13.

10절부터 15절의 북방 왕은 교황권의 대리 권세이다. 이 권세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로 예표된 바와 같이, 철의 장막이라는 장벽이 제거될 때 10절에서 로널드 레이건으로 대표되었다. 16절은 일요법령에서 정교분리의 장벽이 제거되는 것을 가리킨다. 11절과 12절은 2014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표하며, 13절은 2024년의 선거를 지목한다. 그때 레이건 이후 여덟째 대통령이며 또한 앞선 일곱에 속한 여덟째 대통령인 트럼프가 더 큰 권세로 "돌아온다". 이는 그가 돌아올 때 그가 "이전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키고, 분명히 몇 해 후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 "몇 해"는 조 바이든의 4년이다.

2024년 이후, 13절과 일치하여 로마는 파니움의 예언적 역사에 개입할 것이다. 2025년 5월 8일, 영적 영화로운 땅 출신의 최초의 교황이 선출되었고 그는 레오라는 이름을 택하였는데, 그 이름은 여러 중대한 예언적 특성을 내포한다. 그런 다음 15절에서 전투가

개시된다.

그리하여 북방의 왕이 와서 토성을 쌓고 가장 견고한 성읍들을 취할 것이며, 남방의 군대는 능히 대적하지 못하고, 그의 택한 백성도 대적하지 못할 것이니, 대적할 아무 힘도 없으리라. 다니엘 11:15.

파니움 전투는 15절에서 벌어지며, 도널드 트럼프로 대표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남방의 왕국을 패배시킬 것이다. 11절의 남방왕은 교황권의 대리 세력인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개시했는데, 그 우크라이나는 10절의 교황권의 대리 세력, 곧 미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과 후원을 받았다. 남방왕은 라피아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나, 그 승리의 여파 속에서 남방의 용의 왕국의 몰락에 항상 수반되는 점진적 해체가 일어나, 북방왕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져 돌아와 파니움 전투를 준비함에 따라 남방왕을 극도로 취약한 처지에 놓아 둔다. 2014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개시했을 때, 남방왕은 러시아와 푸틴이었다. 2022년에 침공이 시작되었고 피가 흐르기 시작하였다. 2024년에 북방왕이 돌아왔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서 있으며, 이는 한밤중의 외침 기별 선포의 시작을 가리킨다. 베드로는 엘리야와, 리치와 스노우로 대표되는 밀러주의자들처럼, 이전에 닫힌 문과 이슬람에 대한 예언을 제시하였다. 그 성취는 참된 늦은 비 기별과 거짓 늦은 비 기별, 그리고 참된 기별자들과 거짓 기별자들을 구별하게 한다. 베드로의 기별은 내슈빌과 이슬람에 관한 정정된 기별이며,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서 있을 때 그는 16절의 일요일 법령으로 이끄는 전쟁인 파니움에 서 있는 것이다. 베드로의 예언의 성취는 한밤중의 외침 선포의 시작, 곧 이슬람이 풀려나는 때를 가리키며, 또한 줄 위에 줄의 원칙으로는 파니움의 전투가 도래하는 때이기도 하다.

다니엘서 10장의 환상

나팔절은 일곱째 나팔을 표상하는데, 그것은 셋째 화, 곧 이슬람이다. 나팔은 경고의 메시지도며, 또한 거룩한 성회로의 소집을 알리는 부름이다. 이는 또한 제2성전 시험의 30일이 마칠 때 시작되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기초적 외적 시험의 첫 환상은 2024년 봄에 임하였고, 다니엘 10장에 나타난 바와 같은 그리스도의 둘째 내적 시험의 환상은 2026년에 임하였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정금 띠를 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몸은 황옥과 같고 얼굴은 번개 같은 모양이며, 눈은 햇불 같고, 팔과 발은 닦아 빛낸 놋빛과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았나니,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큰 떨림이 그들에게 임하므로 그들이 숨으려고 도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홀로 남아 이 큰 환상을 보았고, 내게는 전혀 힘이 남지 않았다. 이는 나의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부패로 바뀌었고, 나는 힘을 전혀 유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에 빠졌고, 내 얼굴은 땅을 향하였다.

보라, 한 손이 내게 닿아, 나를 일으켜 무릎과 두 손바닥을 땅에 대게 하였다. 그가 내게 이르되, "크게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말하는 말을 깨달으라. 그리고 똑바로 서라. 이제 내가 네게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니, 그가 이 말을 내게 하였을 때 내가 떨며 섰다. 그가 또 내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아. 네가 깨닫고자 하여 마음을 정하고 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히 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렸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나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대적하였으나, 보라, 우두머리 군주들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우러 왔으므로, 나는 거기서 바사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다. 이제 내가 네 백성에게 후일에 임할 일을 네가 깨닫게 하려고 왔나니,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가 이 같은 말을 내게 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말하지 못하게 되었다.

보라, 사람의 자손과 같은 모습을 한 이가 내 입술을 만지매, 내가 입을 열어 말하여 내 앞에서 있는 자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통이 내게 임하였고, 내게는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 주의 종이 어찌 이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이까? 나로 말하면 곧 내게 아무 힘도 남지 아니하였고, 호흡마저도 내게 남아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사람의 형상과 같은 자가 다시 와서 나를 만지고, 나를 강건하게 하고 이르되, 크게 사랑을 입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강하라, 참으로 강하라. 그가 내게 이같이 말하매 내가 힘을 얻고 이르되, 내 주여 말씀하소서.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서 10:5-19.

다니엘은 이십이일째 되는 날, 말세에 나타나는 하늘의 대제사장의 환상을 본다. 로마가 환상을 확립하는 환상은 2024년의 기초적이며 알파적 시험이었고, 그리스도의 환상은 성전 시험이다. 이것은 다니엘에게서 도망하여 숨는 무리의 분리를 초래한다. 그 무리는 거짓과 허위 아래에 숨어 있으며, 이 때문에 그들은 강한 미혹을 받는다.

그런 다음 다니엘은 세 차례 손을 대심을 받는데, 첫째는 가브리엘에게서, 다음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셋째는 다시 가브리엘에게서이다. 지성소에서 다니엘이 세 번 손을 대심을 받을 때 그는 강건하게 하심을 나타내고 있으니, 이는 그가 환상을 보았을 때 아무 힘도 없던 데서 시작하였으나, 세 번째 접촉에 이르러 마침내 강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 닥칠지를 깨닫도록 강건하게 되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칠 일에 관한 그 예언적 메시지는 열 처녀의 비유 안에 표상된 메시지이다.

다니엘은 기력이 전혀 없이 시작한다. 이는 거울에 비친 그리스도의 환상이 그의 기력을 완전히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번의 접촉이 끝날 때 그는 강건하게 되고, "강건하라, 참으로 강건하라"는 명령은 중복으로서 둘째 천사 혹은 둘째 시험을 표지한다. 둘째 시험은 성전 시험으로, 엑서터 야영집회가 끝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을 선포하도록 강하게 되는 시험이다. 그 시험은, 기초와 모퉁잇돌이었던 그 돌이 장엄한 머릿돌로 세워져 성전의 완성이 표지되는 성전 시험이다. 다니엘은 이십이일째 되는 날,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강건하게 된다. 그가 그렇게 할 때

가브리엘이 그에게 손을 대고,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다시 가브리엘이 그에게 손을 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지성소에서 기별을 선포하도록 강건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는 두 천사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계신 그 자리는, 두 덮는 그룹이 언약궤를 굽어보고 있고, 보좌에 좌정하신 그리스도의 쉼기나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진 언약궤 위의 속죄소이다. 다니엘 10장의 환상은, 다니엘이 속죄소의 보좌 위에 임하신 쉼기나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두 덮는 그룹은 언약궤를 굽어보는 모습으로 예언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나팔절 이전에 엘리야는 자신의 비에 관한 기별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유일한 비의 기별이라고 주장하고, 누가 사자인지 아닌지와 무엇이 기별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표징으로 결말에 이르는 한 예언을 제시한다. 갈멜산 이전 3년 반 동안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고 있었으니, 갈멜산에 앞서 논쟁의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갈멜산은 단지 품성이 드러나는 시금석일 뿐이다. 밀러주의 역사에서도 같은 기간에 동일한 증언이 있었는데, 그 기별을 미워한 자들이 신실한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았고, 그 후 신실한 자들은 한때 언약 백성이었으나 타락하여 지나쳐지고 있던 자들로부터 나오도록 사람들을 부르는 기별을 선포하였다.

베드로는 오순절 일요일법의 시점에서 요엘의 기별을 선포하고 있으며, 이는 엑시터 야영회의 끝에서 한밤중의 외침의 기간이 시작될 때 베드로가 동일한 기별을 선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엑시터 야영회는 스노우와 릿치의 기별들이 그러하였듯이 베드로의 예언이 정정되었을 때 시작되었다. 논쟁은 항상 예언의 성취에 앞선다. 그러므로 그 논쟁은 예언의 성취 이전에 시작된다.

아합과 이세벨과 그녀의 선지자들, 그리스도의 시대에 시비를 일삼던 유대인들, 그리고 밀러주의 역사에서 타락한 개신교도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 기별을 베드로는 요엘서로 지목한다. 나귀의 매임이 풀리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세 번째 시금석 이전에, 베드로의 기별은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며, 베드로는 사자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요엘서 세 장의 성취에 불과함을 밝혀 그 저항에 응답한다. 요엘서의 세 장은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에 대한 통렬한 정죄로 시작한다. 그 기별이 독주에 취한 자들의 귀에 들릴 때 그들은 대적하여 나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였고, 예루살렘에서도 다시 그분을 대적하였다.

나귀가 풀려나고 입성이 시작된다; 사소한 문제들을 제기하던 유대인들은 그 기별을 침묵시키고자 한다. 예수께서는 계속 가시다가 멈추어, 재림주의 은혜의 시기의 마지막 날을 두고 우신다. 이어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그들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그치게 하기를 원하는 유대인들과 또 한 번의 대면이 있다. 그날 해가 질 때, 유대 민족을 위한 은혜의 시기는 또 다른 단계에 이르렀다. 저항의 전개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어지며, 그것은 나사로의 부활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둘째 천사의 도래와 지체의 때의 도래를 표징한 사건이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웠으므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이 곧 그 성에 전해졌다. 그 기적을 목격한 밀정들을 통해 유대 지도자들은 신속히 그 사실을 입수하였다.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하여 산헤드린 공회가 즉시 소집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죽음과 무덤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완전히 드러내셨다. 그 위대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결정적 증거였다. 이는 이성과 깨우친 양심의 지배를 받는 모든 이의 정신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신적 능력의 시연이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그분에 대한 증오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들은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던 그 모든 더 작은 증거들을 거부하였고, 이 새로운 기적 앞에서는 분노만을 드러냈다. 대낮의 환한 빛 가운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어떠한 궤변이나 술책으로도 이러한 증거를 호도할 수 없었다. 바로 이 때문에 제사장들의 적의는 한층 더 극심해졌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단시키려는 결의를 굳혔다.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았지만, 바리새인들만큼 그분에 대하여 악의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다. 그들의 증오도 그토록 지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크게 경악하였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소위 과학을 내세워, 죽은 몸이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논증해 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몇 마디 말씀으로 그들의 이론은 전복되었다.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들은 그 기적이 백성에게 남긴 인상을 제거할 가능성을 보지 못했다. 무덤에서 죽은 자를 빼앗아 오기에 능하신 그분에게서 사람들을 어떻게 돌아서게 할 수 있겠는가? 거짓 보고들이 유포되었으나, 그 기적은 부인할 수 없었고, 그 효과를 어떻게 무력화할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지금까지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계획을 부추기지 않았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 이후 그들은 오직 그의 죽음으로만 자신들에 대한 그의 두려움 없는 규탄을 막을 수 있다고 결심하였다. 시대의 소망, 537.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께서 지체하신 나홀의 시작을 알렸다. 그의 죽음은 지체의 때의 시작을 표하는 둘째 천사의 도래를 상징하였다. 그의 부활은 9/11로부터 22년 후인 2023년 12월 31일에 두 증인이 부활함을 표시한다. 그의 부활은 에스겔의 죽은 마른 뼈들의 부활을 표시한다. 그의 부활은 아담의 창조로 예표되었는데, 그 창조는 흙으로 표상된 인성과 생명의 호흡으로 표상된 신성이 결합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를 미워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무리가 그분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능하신 행적을 목격하고자 몰려왔다. 백성은 지극한 관심으로 격동되어, 이 놀라운 교사의 교훈을 듣기 위하여 간절히 예수를 뒤따랐다. 관원들 가운데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으나,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백성의 주의를 예수에게서 돌리기 위하여 무언가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길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지위를 잃든지, 아니면 예수를 죽이든지 해야 했다. 그리고 그를 죽인 후에도 여전히 그분의 권능의 살아 있는 기념비들이 남아 있을 것이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므로, 만일 그들이 예수를 죽인다면 나사로가 그분의 능하신 권능에 대하여 증언할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였다. 백성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를 보려고 떼 지어 몰려들었고, 관원들은 소동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나사로까지도 죽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백성을 사람의 전통과 교훈, 곧 박하와 운향의 십일조로 돌이켜, 다시금 그들 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다. 그들은 예수가 홀로 계실 때 체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그들이 군중 가운데서, 곧 백성의 마음이 모두

그에게로 쏠려 있을 때 그를 붙잡으려 하면 돌에 맞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18일,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였고, 둘째 천사와 지체의 때가 도래하였다. 2023년 12월 31일, 두 단계의 부활 과정이 시작되었다. 첫 단계는 기초를 놓는 것이었고, 둘째 단계는 그 기초 위에 성전을 건립하는 것이었다.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그 기별이 1989년에 출현한 때부터 그것을 미워하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미워한다. 그들이 죽었다고 여겼던 그 미움받던 증인들이 이제 다시 살아났으므로, 그들은 그 기별을 더욱더 미워할 것이다. 그들은 2020년 7월 18일의 예언을 두고,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하여 품었던 것과 같은 독기로 논쟁할 것이다. 성전 시험의 역사 속에서, 베드로는 그들의 모든 거짓에 대한 해답으로 요엘서를 가리키며 그들의 그릇된 비난을 반박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